

특별기고



강봉철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함께 심화되는 각국 보호무역주의가 공급망의 불안으로 이어져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대내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어 경제성장 흐름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신규 FTA를 체결해 전 세계 59개국(교역비중 77%)과 20개의 FTA 협정이 발효된 현재의 무역환경은 부존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수출증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수출정책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방식의 수출도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전자상거래 추이를 보면 2018년 961만건에서 2022년에 4,359만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전자상거래가 거래처 확보나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낮은 진입장벽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효과적 수단임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활발

관세청은 FTA 확대에 대응해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5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경제활력 제고 위한 광주세관 기업지원 방향

터는 2017년 2월 직제가 신설되어 광주와 전라 지역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추진 중이다.

센터는 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상담 등을 통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으로 수출기업이 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추정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FTA 관련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와 함께 사전에 모의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련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통관 애로 사항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관세청과 주요 교역상대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관세관과 협조해 해외통관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지역의 농수산물류, 특산품 등 제조(가공)업종 등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입기업지원 주요 성과로는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입점기업 수출성공 및 광주 김치타운의 베트남 수출 재개 사례가 있다.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에 입점한 기업 중 독일 농수산물류를 수출하려는 A사 등 9개 기업이 2020년 7월 우리세관에 수출지원을 요청했다. 유럽으로 6,000불 이상 수출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우리세관은 전남FTA 활용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수출 전담 컨설팅하고, A사 등 8개 업체가 유자차 등 농수산물류 총10개 품목에 대해 한-EU 협정에서 정하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6개월 내에 17만불 상당의 농수산물류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광주김치타운에 소재한 K사는 엄격한 위생과 안전관리를 표방하며 100% 국산원재료 감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난 2020년 베트남으로 첫 수출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치는 기본세율 32%, 한-베트남 FTA 세율 0%로 FTA활용 실익이 큰 품목이나, K사는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컨설팅·해외통관·역량강화

우리세관은 K사에게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공익관세사와 합동컨설팅을 제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K사는 이후 베트남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최근의 무역트렌드는 FTA 확대와 전자상거래가 주도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세관에서도 이 트렌드에 따라 통관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FTA 활용 수요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 세관 위주의 기업지원에서 탈피해 무역과 통관분야 전문 자격사인 관세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우리세관은 광주지방관세사회와 협업해 관세사에 의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민간영역으로 FTA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남도와 수출유망한 기업을 공동 발굴해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에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 또 광주지역 수출유망기업도 발굴해 '아마존 수출창고(가칭)' 매장을 개설, 입점비 제비용삭, 포장, 보관, 통관 등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지역내 유망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월 24일 오전 11시에 서해수호 55용사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 참전장병 등을 모시고 거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슬로건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를 지켜 낸 영웅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든든한 안보를 통해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로 정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난 극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유족 참전 장병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도록 각별히 예우하고,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급증에 따른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대정부 의지로 표명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보훈청에서도 서해수호의 날을 추모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념식 및 계기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9년 이후 코로나19상황으로 중단됐던 광주지방보훈청 자체 기념식이 3월 24일 오전 10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기관·단체장, 군부대장, 시민, 학생 250여명이 참

여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광주문성중학교와 금곡공업고등학교에서는 서해수호 55용사들에게 추모 메시지를 리본에 작성해 낭독만들기 행사를 추진하고, 온라인에서는 쿼츠 이벤트도 진행된다.

그리고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해수호의 날 추모 메시지 전광판 및 ATM기 송출 등 국민과 함께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와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격언이 있다. 역사적 사건을 깊이 되새기고 기억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민족만이 국난을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난을 극복하고자 한마음으로 싸운 국토수호 전사자의 정신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되살아나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국가적 위기일지라도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

다가오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분들을 기억함으로써 온 국민의 마음은 가깝게 하나 되고, 위기 극복을 통해 도약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학기 '청소년 가출' 관심 가져야

전적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모의 관심과 가족 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청소년

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탈선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김주영 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



이보람
광주지방보훈청 주무관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지만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의 생명의 움틀 수 있는 파스함이 느껴지는 3월이 되었다.

3월에는 국경일로서 3·1절이 있지만, 법정기념일로서 넷째 금요일에는 서해수호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 올해로 벌써 여덟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이 날이 생소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순화한 55명의 호국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시키기 위해 47명이 전사하여 우리 해군의 피해가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일(2010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올해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3

특지광장

신학기는 학교배정에 대한 불만, 새로운 급우들과의 의견충돌, 학교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청소년의 가출이 자주 발생한다.

문제는 짧은 기간의 가출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생활이 극도로 위험하고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출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가출을 합리화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신학기마다 각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학교는 물론 자치단체·언론·기관 등이 대응할 수 있는 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한 예방적, 사

시설

'전방 부지 개발' 광주도심 확 바뀌는가

광주지역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일컬어지는 옛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국제설계공모 결과 덴마크 건축설계회사 '어반 에이전시'의 작품이 선정돼 시민 기대감이 상승한다. 어반 에이전시의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는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생활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을 반영했다는 소식이다.

또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로 명명된 내부 순환로를 통해 주요 거점시설을 연계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랜드마크 타워의 계획 설계권이 부여된다고 한다. 광주시는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결과를 전방·일방 부지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해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뭉니다. 이 당선작을 중심으로 7월까지 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 하겠

습니다"고 했다.

향후 부지 개발사업자 측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당선작의 친환경, 생활기반 접근성에 무게를 둔 도시계획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도시의 대대적인 개발인 만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있다. 시민 편익과 함께 삶의 환경 개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해져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 기능과 경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도심 개발 역사가 전방 및 일방의 개발 전과 후로 나뉘볼 수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인천이 송도신도시 개발로 상전벽해를 맞았다고 할 만큼 도시 전체가 바뀌었는데 광주도 전방 및 일방의 개발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그에 버금가는 도시공간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계 당국의 배전의 노력을 촉구한다.

고흥, 첫 '국가산단 유치' 의미 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로 최종 지정해 군민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껏 품게 했다. 이는 고흥군 개성 이래 최초 '국가산단단지 유치'이자 고흥군의 핵심전략산업인 우주산업 분야의 발전을 마련한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고흥군은 발사체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은 전략을 내세운 만큼 확실한 콘셉트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중앙부처·전남도와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또한 이번 신규 국가산단 지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8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우주개발 필수 인프라 구축 및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해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단지 지정은 지난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과 더불어 우주

항공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군민의 염원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산단 지정에 노력한 국토부, 관계부처 및 전남도에 대해 군민과 70만 고흥 향우들과 함께 깊은 감사와 감사라고도 호응했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과 이로 파생되는 연계사업은 10년 후 인구 10만 이상의 웅군으로 성장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방향에 발맞춰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민들은 국가산단 조성과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입주로 약 4조 9,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약 2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가산단은 투자유치가 성공의 관건이라면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발사체 앵커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유치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 철저한 수사로 경중 울리길

기지수첩



최환준
사회부 차장

최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가상자산 등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5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공행위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집중단속을 시작한 첫날부터 마약류리법 위반 사범이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광주

·전남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44명으로, 이중 구속된 마약사범은 7명이다. 또한 전남에서는 이달부터 5건의 마약범죄가 발생해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2020년 584명, 2021년 385명, 2022년 585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한 달 평균 4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하에 따른 비대면 거래와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판매가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내놓았지만, 마약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마약 유통은 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화폐로 이뤄지는 만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 등이 저절로 삭제돼 적발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즉, 마약 범죄 처벌 절차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도 동반돼야 한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뿐 아니라 살인이나 성폭행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나라를 좀 먹는 마약범죄로 불리는 '마약'이 더 이상 활개치지 않도록 당국의 총력을 기울여 경중을 울리길 바란다.